주 제:	"보물을 얻기 위해서"	" 연중 제 17 주일"	2008 년 7 월 27 일
복음 묵상:	[마태 13,44-52]	[1 열왕 3,5.7-12]	[로마 8,28-30]

어느 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마르 10,28-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서 받는 백 배의 상과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보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은 어떤 한 부자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 나라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루카 18,22)"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서 내려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늘 나라라는 새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것을 다 팔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보물을 얻기 위해 가진 것을 다 팔거나 나누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차지하게 될 보물이 너무도 값지고 좋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얻도록 합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큰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삶이 되어 봅시다. (안동 권 상목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8 월 3 일 (일) **이재섭 니콜라스 와 이 필로메나** 부부님께서 성가대원들을 점심에 초대하여주셨습니다. 장소는미사후 Los Altos 에 있는 Sylvan Park Mt.View 에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효원도미니카** 자매님, Kamca 의 Youth Symphony 단원들을 이끌고 7/18 부터 7/29 일까지 서울 Summer Camp 를 떠나셨습니다.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 지난 주부터 교중 미사후 부족한 연습시간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30 분간 **오후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능한 대로 빠짐없이 연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석에 부를 **주님 공경가 와 국악 미사곡(강수근 신부님)은 본당 성가대 연습방에** 올려 놓았으니 참조하시어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요.

알림

1. 여러가지 사정으로 **성가대 피정 일자를 9 월 13 일(토)로 변경**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피정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요.

2. **성가대 피정을 위한 첫번째 모임을 7 월 27 일 오후 연습후에 가지려 하오니 모든 임원들과 각 파트장님들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가 피정에 관심이 있는 단원은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고, 좋은 피정이 되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복음 [마태 13,44-52]

"하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 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 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을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 듣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1분 명상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순명은
큰 일들에서뿐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주님 당신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드릴만한 것이면 무엇이나
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 마더 데레사_